

## 다윗의 조가(삼하 1:17-27) -다윗의 왕정 이념의 노래-

김정봉\*

### 1. 서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조가를 지어 유다 족속에게 가르쳤다(삼하 1:17-27). 그는 자신의 조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자 군사 지도자들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의 삶을 영웅적으로 회고하며 그들의 죽음에 조의를 표한다.<sup>1)</sup>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었고 ‘용사’였으며 ‘싸우는 무기’였다. 다윗은 그들을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들로 묘사한다. 그러나 다윗은 산 위에서 당한 그들의 죽음을 상기시키며 쓰러져 망한 자들로 반복해서 알린다.<sup>2)</sup> 이는 마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은 용사들이었지만 결국 망한 자들로 선포하는 인상을 자아낸다. 이처럼 다윗의 조가에 내비치는 이중적인 성격은 그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명령(삼하 1:18)한 불명확한 다윗의 의도와 함께 주

---

\* University of Pretoria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시간 강사. jbkim0104@gmail.com.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7712).

- 1) 사무엘하 1:19-27은 다윗의 진심어린 슬픈 노래이며 이스라엘의 영웅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곡이 진정성을 나타낸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하라. J. Randall Short, *The Surprising Election and Confrontation of King David*, HTS 6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Paul Borgman, *David, Saul, and God: Rediscovering an Ancient 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53; W. B.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0), 214; H. W. Hertzberg, *I & II Samuel*,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239.
- 2) 다윗의 조가를 정치적인 수사적 노래로 설명하는 접근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Tod Linafelt, “Private Poetry and Public Eloquence in 2 Samuel 1:17-27: Hearing and Overhearing David’s Lament for Jonathan and Saul”, *The Journal of Religion* 88 (2008), 526; A. F. Campbell, *2 Samuel: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volume VIII* (Grand Rapids: Eerdmans, 2005), 25; Michael B. Dick, “The ‘History of David’s Rise to Power’ and the Neo-Babylonian Succession Apologies”, Bernard F. Batto and Kathryn L. Roberts, eds., *David and Zion* (Winona Lake; Eisenbrauns, 2004), 11.

목된다.

다윗의 조가의 이중성은 『개역개정』에서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כבוד**(찌비)와 ‘높은 곳’으로 번역된 **גבוה**(바뭇) 그리고 다윗의 길보아산에 대한 저주의 표현 등을 분석하도록 이끈다. **찌비**와 **바뭇**은 비록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극존칭과 전사한 장소를 가리키지만 두 단어의 다의적인 성격으로 인해 본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 문맥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단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사실 다윗의 조가는 개인적이자 공적인 노래라 할 수 있다.<sup>3)</sup> 다윗은 그의 노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애도하였으며 또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초래할 공적인 결과도 주목하였다(삼하 1:20).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기 위해 지어진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근접문맥 속에서 그 노래의 의도와 의의는 명확하지 않다.

다윗의 조가의 분석을 위해서 정치적 배경은 간과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추모한 이후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삼하 2:4). 따라서 다윗의 조가에 자리한 다윗의 정치적 동기는 주목되어야 하며 그 정치적 배경과 의도는 다윗 왕정 이념과의 연관성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다윗의 조가(삼하 1:19-27)는 그 구조와 내용이 사울 전승(삼상 9-11; 13-15)을 포함한 넓은 문맥인 다윗 이야기(삼상 16-삼하 5)와 고대근동 왕정 이념의 배경 속에서 수행될 것이다. 다윗의 조가는 궁극적으로 신적으로 부여된 다윗의 정치적 권위와 지도력을 선언하는 노래로 다윗과 그의 집 그리고 그의 왕정에 대한 영원한 신적 언약을 주장하는 다윗 왕정 이념(삼하 7)의 배경 속에서 그 진정한 의의가 자리한다는 논증을 전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2. 다윗의 조가의 배경

3) 리나펠트(Tod Linafelt)는 사무엘서에서 ‘이상적인 왕’과 ‘무자비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왕’ 등의 다윗의 양면성을 주목함으로 다윗의 조가를 개인적 애곡의 시와 공적 정치적 수사의 양면성의 관계에서 분석하였다. Tod Linafelt, “Private Poetry and Public Eloquence in 2 Samuel 1:17-27: Hearing and Overhearing David’s Lament for Jonathan and Saul”, *The Journal of Religion* 88 (2008), 497-526; 한편 보그만(Paul Borgman)은 다윗의 조가에서 사울을 향한 다윗의 지고한 경외감과 함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깊은 사랑의 개인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다윗의 개인적 태도는 모든 이스라엘의 눈에 다윗 자신의 위상을 고양시키게 되었으며 결국 정치적 이익을 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aul Borgman, *David, Saul, and God: Rediscovering an Ancient 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53-156.

다윗의 조가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을 전하는 사무엘상 16장으로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음을 알리는 사무엘하 5장까지의 다윗 이야기 내에 자리한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지휘관이자 그의 사위였으며 또한 그의 아들 요나단과는 언약 관계에 있던 친구이자 동료였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사울의 군대가 직면한 수치와 패배의 위협으로부터 승리를 가져다주었다(삼상 17장). 다윗의 명성은 사울의 명성을 항상 능가하였다(삼상 18:5-7). 갑작스런 다윗의 영웅적인 등장과 부상 그리고 그에게 쏘리는 국가적 주목은 사울로 하여금 소외감과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삼상 18:9-12). 사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다윗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황급히 사울을 피해 유랑하게 되었다(삼상 19:18).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사울로부터의 다윗의 도피는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로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다(삼하 1-2장).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였으며 곧바로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을 간직한 유다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 곳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다(삼하 2:1-4).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이후에도 여전히 사울 왕정을 이어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생존하였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였고(삼하 2:8-9)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추대된 것이다(삼하 2:4). 이후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이 살해되고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시해되자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다윗에게 나아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다(삼하 5:2).

한편 다윗 이야기에는 다윗이 왕이 된 그의 모든 정치적인 여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선택과 이끄심<sup>4)</sup>의 결과였음이 주장된다. 다윗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에 의해 선택되었으며(삼상 16:1)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함을 경험하였다(삼상 16:13). 다윗은 전투에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승리하였으며(삼상 17:45-49) 유랑의 혼란 속에 여호와가 보내신 선지자의 지시에 순종하였다(삼상 22:5). 다윗이 헤브론으로 나아간 것은 여호와와의 응답을 통해서였다(삼하 2:1). 다윗의 조가의 넓은 문맥은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신적 보장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알린다.<sup>4)</sup> 그러므로 다윗 왕위 등극사는 종종 정치 변증 문학으로 설명되어진다.

맥카터(P. K. McCarter)는 주전 13세기 히타이트 왕정 변증 문학인 하투

4) 다윗 왕위 등극사에 관한 최근의 간결한 요약물 위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Michael B. Dick, "The 'History of David's Rise to Power' and the Neo-Babylonian Succession Apologies", 3-19.

실리스 (Hattushilish)의 변증을 사무엘서 본문과 비교 연구하였다.<sup>5)</sup> 맥카터에 의하면 사울 궁정에서 행한 다윗의 이타적인 봉사와 헌신, 도망자가 됨, 추방자로서 압제받는 무리들을 위해 지도자가 됨,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의 용병이 됨, 사울의 죽음에 관해 무관함, 아브너의 죽음에 관해 무관함, 그리고 이스바알의 죽음에 관해 무관함 등의 주제는 변증적으로 설명된다.<sup>6)</sup> 한편 맥카터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추대된 사건은 다윗의 군사적 성공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즉각적인 충성으로 다윗의 통치 능력을 변증한 것이라 설명했다.<sup>7)</sup> 그러나 사무엘서의 다윗 왕위 등극을 변증적 정치 문학적으로 접근한 맥카터의 분석은 하투실리의 변증과 다윗 왕위 등극사와의 유사성에만 주목함으로 방법론적인 한계를 보였다.

랜달 숏(J. Randall Short)은 맥카터와 달리 히타이트 변증 문학과 다윗 왕위 등극사와의 차이점에 주목했다. 숏은 다윗 등극사의 내러티브에는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지만 히타이트 변증 문학에서는 하투실리<sup>8)</sup>를 무죄하며 의로운 자로만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9)</sup> 숏은 두 문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주목하는 한편 히타이트 변증 문학과 다윗 등극사와의 대조적인 특징은 다윗의 조가에서 주목된 다윗의 전임자들에 대한 전적인 칭송이 하투실리의 전임자들에 대한 적대적 표현과 또한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결국 다윗 왕위 등극사(삼상 16-삼하 5)와 하투실리의 변증 문학은 서로 유비적이지 않다고 결론지었다.<sup>10)</sup> 숏은 다윗 왕위 등극사와 히타이트 변증 문학과의 유사성을 절대화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 된다는 논지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지만 그의 분석은 다윗의 조가의 여러 주제어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진정성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단정 지음으로 그 단어들의 다의적인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마이클 딕(Michael B. Dick)은 전임자의 왕권을 찬탈한 고대 근동 왕들 사이에 일치하는 공통점은 자신들의 왕권을 성스런 것으로 강조하는 것

5) 맥카터는 다음 다섯 가지의 하투실리스 변증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하투실리스의 행정적 군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통치 능력이며, 둘째는 하투실리스의 형 무르실리스(Murshilish)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셋째는 형에 대한 가족의 존경심 유지이고, 넷째는 의심과 질투에 치우친 무르실리스의 아들이자 하투실리스의 조카인 우르히-테슉(Urhi-teshub)과의 충돌에 대한 무죄함이며, 다섯째는 하투실리스의 수호신인 이스타르(Ishtar)의 호의의 결과로 소유하게 된 능력 등이다. P. K. McCarter, "The Apology of David", *JBL* 99 (1980), 495-498.

6) *Ibid.*, 499-502.

7) *Ibid.*, 499.

8) 숏은 맥카터의 하투실리스를 하투실리로 읽는다.

9) J. Randall Short, *The Surprising Election and Confrontation of King David*, 75-78.

10) *Ibid.*, 49.

이며 그와 유사한 배경 속에서 다윗 왕위 등극사는 주전 6세기의 신 바벨론 왕들의 변증 문학과 비교된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디은 나보니두스와 다윗의 비교를 통해 다음 네 가지 변증적 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나보니두스와 다윗의 전임자들은 각각 신적 승인을 상실했다. 둘째, 나보니두스와 다윗은 누구도 왕위를 추구하지 않았다. 셋째, 나보니두스와 다윗은 그들의 왕권에 대한 신적 승인을 받았다. 넷째, 나보니두스와 다윗의 왕권 형성은 의복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 전개되었다.<sup>12)</sup> 디의 변증적 접근에서 주목되는 주제는 신적 승인이다. 전임자는 신적 승인을 상실했지만 새로운 왕은 신적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후임자의 왕위 등극은 왕권 찬탈의 결과가 아니라 신적 승인을 득한 종교적 열정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윗 왕위 등극사의 변증적 배경은 전적으로 부인되기 어렵다. 비록 넓은 문맥에서는, 사울은 다윗이 공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신적 지지를 상실한 것으로 전하지만(13:14; 15:11), 사울에 대한 다윗의 종교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변증적 배경은 주목된다(삼하 24:8-15).

그러나 소위 말하는 다윗 왕위 등극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기에 앞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전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다 지파에게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변증해야 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았다. 유다 지파는 사울 왕정이 세워질 때부터 이스라엘과 구별되었는데(참고, 삼상 11:8) 사울 왕정 체제에서 다윗은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와 장로들을 돌보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했었다(삼상 30:26). 유다 지파의 유력한 성읍이었던 헤브론으로 다윗이 그의 거처를 옮김으로 그는 유다 사람들을 통해 신속하게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삼하 2:4). 이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로부터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다윗 왕위 등극사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삼하 5:1-3).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 찬탈자가 아니라 유다의 왕이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적이며 이상적인 왕으로 추앙받게 된다(왕상 3:3; 14:8). 다윗 왕위 등극사는 다윗이 유다 왕이 된 것은 신적 승인과 함께 이루어진 이상적인 결과이지 변증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윗의 조가의 넓은 문맥인 다윗 왕위 등극사를 변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인 이해로 보인다. 특히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사건에

11) Michael B. Dick, "The 'History of David's Rise to Power' and the Neo-Babylonian Succession Apologies", 3-19.

12) Ibid., 12-18.

대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변증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지지로 왕이 되었으며 그것은 여호와의 신적 승인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다윗의 조가의 정치적 배경은 다윗은 자신의 왕권 찬탈을 변호하기 위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영웅적으로 묘사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부각시킨다. 다윗의 조가는 오히려 유다의 왕으로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왕정 이념을 선언하는 배경 속에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 3. 다윗의 조가 본문 분석

#### 3.1. 탄식 구절(19, 25, 27절)

다윗의 조가는 사무엘하 1:19-27로, 19절과 25절 그리고 27절의 반복된 구절이 그 두드러진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노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도가 주제이며(19, 25, 27절)<sup>13)</sup> 본 노래를 선행하는 구절인 17절과 18절은 본문의 성격과 목적을 보충하여준다.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이며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진 노래이다.<sup>14)</sup>

다윗의 조가의 문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전형적인 접근은 교차대구법적 분석이다.<sup>15)</sup>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영웅적으로 간주되며 그들은 용맹한 용사들로 묘사된다. 교차대구법적 분석에 의하면 죽은 자의 생전의 삶의 모습을 칭송하는 두 구절은 본문의 중심 구절이 된다.<sup>16)</sup> 다윗의 조가의 교차대구법적 구조 이해는 본문의 규칙적이며 주제

13) 참고,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329.

14) 구약성서에서 탄식을 노래하는 예가는 전반적으로 역사적 상황이나 인물들과 연관된다 (렘 1-5, 겔 19:1-14; 참고, 삼하 19:1-4)는 점에서 서론의 역사적 배경은 타당하게 여겨진다.

15) 게일 이(Gael Yee)는 다윗의 조가의 삶의 자리를 장례식으로 제시하고 교차대구법적 구조 이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여섯 개의 주제를 배열하였다. 19절: 죽음을 알리는 수사적 서론; 20절: 죽음의 소식이 적에게 전파됨에 대한 억제; 21절: 죽음에 대한 자연 현상의 묘사; 22-23절: 죽은 자의 생전의 삶의 묘사; 24-25절: 죽은 자를 위한 애곡의 요청; 26-27절: 죽은 자에 대한 개인적 슬픔의 표현. Gale A. Yee, "The Anatomy of Biblical Parody: The Dirge Form in 2 Samuel 1 and Isaiah 14", *CBQ* 50 (1988), 573.

16) William H. Shea, "Chiasmus and the Structure of David's Lament", *JBL* 105:1 (1986), 13-25; M. O'Connor, *Hebrew Verse Structure* (Winona Lake: Eisenbrauns, 1980), 230-233, 468-471, 555-556. 아울러 삼하 1:19-27의 문학적 구조 및 장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Nissim Amzallag and Mikhal Avriel, "Complex Antiphony in David's Lament and Its Literary Significance", *VT* 60 (2010), 1-14.

중심적인 구조의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sup>17)</sup> 본문의 정교한 문학적 구성을 잘 대변한다. 본문에 대한 교차대구법적 이해는 적어도 다윗의 조가는 즉흥적으로 불리어진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

본문의 주제와 구조에 주안점을 둔 교차대구법적 접근은 그러나 다윗의 노래에 내재된 다윗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분석에는 제한적이다. 사실 교차대구법적 구조 분석에 근거한 사울과 요나단의 영웅적 죽음에 대한 이해는 반복되는 탄식 구절들의 기능과는 대조된다. 19절과 25절 그리고 27절에서 반복된 탄식 구절들은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군사 지도자로서의 실패로 제시하는 듯하다. 특히 27절에 덧붙여진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음’의 구절은 사울과 요나단이 군사 지도자로서 실패하였음을 결론 내린다. 반복된 탄식 구절은 영웅적 행위의 칭송(22, 23절)과 대비된다.

마지막 탄식 구절에 덧붙여진 ‘싸우는 무기가 망함’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에 그 탄식의 초점이 있는 선행 구절들의 관심을 사울과 요나단의 전쟁 도구로 옮기게 된다. 22절에서 전쟁도구인 ‘활’과 ‘칼’이 사울과 요나단의 영웅적 행위를 상징하는 데 반해 반복된 마지막 탄식 구절은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전사하였으며 그들이 소유한 전쟁 도구는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다윗의 조가의 탄식의 주제와 시적 사상은 세 개의 탄식 구절로 연결되고 강화된다.<sup>18)</sup> 사울은 생전에 전쟁 도구의 소유를 통해서 군사 지도자로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였다.<sup>19)</sup>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사울은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곤 항상 창을 손에 지니고 있는 자로 묘사된다(삼상 18:10; 19:9; 20:33; 22:6). 한번은 사울에게 자신의 창을 분실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우연한 중에 십 광야 하길라 산 길 가에서 사울의 창을 취하게 된 것이다(삼상 26). 사무엘상 26:12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 하셨다. 다윗은 그 사건 가운데 자신은 사울을 치는 자가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였다(삼상 26:10). 사울은 자신의 창을 분실한 자이며 다윗

17) 테리 펜톤(Terry Fenton)은 이처럼 규칙적이며 주제 중심적인 다윗의 노래의 시적 양식은 근접한 문맥과 넓은 문맥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과 그것들의 상황들을 잘 반영하며 사울과 요나단의 비극에 대한 다윗의 직접적이면서 분명한 반응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다윗의 애가의 구조는 그 사건들과 사건들의 배경들이 후대에 고안된 것이 아닌 것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Terry Fenton, “Hebrew Poetic Structure as a Basis for Dating”, John Day, ed., *In Search of Pre-Exilic Israel*, JSOTSup 406 (London: T & T Clark, 2004), 407.

18) 이와 유사한 보기를 위해서 욥기 28장을 참고하라. 욥기 28장은 12절과 20절의 반복구개시의 구조를 나누며 마지막 구절인 28절에서 반복구의 핵심어들로 주제의 절정을 제시한다. 참고, Craig G. Bartholomew and Ryan P. O’Dowd, *Old Testament Wisdom Literature: A Theological Introduc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0), 169-170.

19) 참고, 샌드라 리히터,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157.

은 그것을 취한 자이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저주와 연결된다(참고, 삼상 26:19). 그러나 그를 치실 자는 여호와이시다. 탄식 구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초래하는 공적인 결과(20-21절)와 다윗의 개인적인 탄식(22-23, 26절) 그리고 공적인 애도(24절)를 이어주는 구조상 이음매의 역할을 한다.

### 3.2. 실패한 가젤

다윗의 조가의 첫 단어는 히브리어로 **חַצְבִּי**(**핫찌비**)이다. **핫찌비**는 문법적으로 명사인 **찌비**에 정관사가 전접되어 형태상 한정된 의미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연계 상태에서 히브리 단어의 한정은 뒤따르는 단어에서 나타나므로<sup>20)</sup> **핫찌비**는 뒤따르는 단어인 **יִשְׂרָאֵל**(**이스라엘**)과는 연계 상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웨아는 **핫찌비**의 직접 호칭은 **이스라엘**과 속격을 이루어 살아 있는 길보아 산과 병행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찌비**는 요나단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그러나 다윗의 슬픈 노래와 같이 정교한 시적 본문에서 감탄사나 호격 등의 기능이 아닌 정관사의 존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sup>22)</sup> 본문에서 **핫찌비**는 **이스라엘**과 병렬관계 속에 있으며 호격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구약성서에서 **찌비**는 크게 세 갈래로 그 의미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가젤’(신 12:15, 22; 14:5; 15:22; 왕상 4:23; 대상 12:8; 잠 6:5; 아 2:7, 9; 8:14; 사 13:14)<sup>23)</sup>이며 둘째는 ‘영광’(사 24:16; 28:5; 참고, 사 13:9)이고 셋째는 ‘아름다움’(사 4:2; 램 3:19; 겔 20:6; 25:9; 단 8:9; 11:16, 41, 45)이다.

『개역개정』에서 본문의 **찌비**는 ‘영광’으로 번역되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한다는 이해에 잘 부합되어 보인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칭송은 22절과 23절에서 두드러지는데 사울과 요나단은 물러서지 않는 영웅적인 용사가 된다. 그들은 생전에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한 자들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스런 군사 지도자들이다. 사실 **찌비**는 다른 본문 속에서 ‘영광’의 의미를 대변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보기는 이사야 본문 속에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적 속성을 나타낸다(시 24:9; 사 6:3; 참고, 사 3:8; 10:16;

20) C. L. Seow, *A Grammar for Biblical Hebrew* (Nashville: Abingdon, 1987), 70.

21) William Shea, “Chiasmus and the Structure of David’s Lament”, 14.

22) D. N. Freedman, “Acrostics and Metrics in Hebrew Poetry”, *Poetry and Prophecy: Studies in Early Hebrew Poetry* (Winona Lake: Eisenbrauns, 1980), 2-3.

23) 『개역개정』에서 **찌비**는 가젤의 의미로 ‘노루’, ‘들노루’, 그리고 ‘산의 사슴’ 등으로 번역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넓은 의미로 가젤을 사용한다.



40:5). 다른 경우는 국가로서 에브라임의 특성을 제시하는 본문이다(사 28:1-5). ‘쇠잔해 가는 꽃’과 같은 영화[찌비]를 소유한 에브라임(사 28:4)과 ‘영화로운[찌비] 먼류관’(사 28:1)이신 여호와와의 성품이 찌비를 통해 대조된다. 이처럼 찌비는 여호와와의 신적 속성을 제공하는 한편 제한적이며 무능한 국가적 존재인 에브라임의 속성을 대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결국 찌비는 신적 대상의 영속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인간의 제한적인 속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만약 다윗의 조가에서 찌비가 ‘영광’의 의미로 고안되었다면 그것은 쇠잔해 가는 사울의 영광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진 사울 왕정의 속성을 알리기 위해 찌비는 적절한 용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참고, 삼하 7:13, 16). 이와 같은 주목은 사울 왕권의 몰락을 통한 다윗의 정치적 주장이 다윗의 조가에 자리한다는 개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와 사자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로 그들의 민첩함과 용맹함이 조상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전에 사울과 요나단은 뛰어난 군사 지도자들(삼상 11:1-11; 14:1-45)로<sup>24)</sup> 그들의 군사적 능력으로 인해 그들의 업적이 칭송되었다(삼상 14:47-52). 본문 분석과 관련해서 특히 요나단의 기개와 용맹함이 주목되는데 그는 바위를 기어 올라가(삼상 14:13)는 민첩한 자로 전해진다. 바위를 오름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요나단의 민첩함과 재빠름은 산과 바위를 자유롭게 달리는 ‘가젤’의 움직임과 유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대상 12:8; 아 8:14). 민첩한 가젤로서의 요나단의 군사적 자질은 분명 ‘독수리’와 ‘사자’가 제공하는 용맹한 속성과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조가에서 찌비가 제공하는 시적 분위기는 죽임을 당하여 었든 자로 멸망한 용사의 특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비록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와 ‘사자’처럼 용맹한 용사들이었지만 그들은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로 조상된다. 이는 오히려 찌비가 사울과 요나단의 실패한 군사적 능력을 반영하는 용어로 계획된 것처럼 보인다. 근접 문맥은 이와 유사한 보기를 제공하는 데 민첩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아사헬이 상기된다. 아사헬은 민첩한 가젤로 불리었지만 아브넬을 뒤쫓음에 민첩한 까닭으로 그는 죽게 되었다. 아사헬의 민첩함은 그가 실패한 ‘가젤’이었음을 나타내는 속성이 된다. 사울과 요나단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가젤’이 된다. 찌비가 실패한 가젤의 의미를 대변한다면 실패한 가젤로서 사울

24) 참고, B. M. Levinson, “The Reconceptualization of Kingship in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s Transformation of Torah”, *VT* 51 (2001), 517.

과 요나단은 그들의 전쟁무기가 버린바 되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것이며 결국 망한 것이었다는 본문의 묘사(21, 27절)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sup>25)</sup>

사울과 요나단의 군사 지도자로서의 실패는 그들의 죽음이 민족적 수치를 불러 온다는 탄식 속에서 더욱 강화된다. 블레셋은 사울과 요나단을 멸망시켰다. 따라서 그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전과되기를 금지하는 것은 20절의 표현처럼 단지 블레셋의 환호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가져온다고 선언하는 수사적 표현으로 보인다(참고, 미 1:10). 다윗은 블레셋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구별하는 언약의 표징(창 17:9-10; 출 4:26)인 할례를 부각시킨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 인한 사울과 요나단의 멸망은 암몬의 나하스에 의해 이스라엘에 부과되었던 민족적 수치를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각인된 사울의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회상시킨다(삼상 11:1-15). 결국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에 의한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수치가 되었다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사울에게도 몹시 불명예스런 것이었다(삼상 31:4). 그러나 다윗의 조가에는 블레셋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된 그의 죽음을 불명예스럽게 고백하는 사울의 태도가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 그들의 뛰어난 군사적 능력과 지도력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군사적 자질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뛰어난 군사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은 블레셋에 의해 전장에서 망하지 않아야 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진 그의 노래가 실패한 가젤인 사울과 요나단을 노래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의 실패를 노래한 다윗은 분명 성공적이며 구원받고 높임 받을 군사 지도자로 간주되었을 것이다.<sup>26)</sup> 그런 관측으로 볼 때 본문에서 **찌비**는 ‘가젤’의 의미가 가능하다.<sup>27)</sup>

25) 물론 **찌비**는 땅이나 성읍 혹은 장식품 등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다(겔 7:20).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찌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본문 내에서 **찌비**는 사울과 요나단을 아름다운 자로 수식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찌비**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장소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장소를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윗에 의해 저주받은 길보아 산과의 내용상 충돌을 유발하며 특히 다윗의 슬픈 노래에서 다윗이 조상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울과 요나단이지 그들이 전사한 장소는 아니란 관측에 있어서 **찌비**의 의미로 ‘아름다움’은 본문에서 적절하지 않다.

26) 고대 근동에서 왕을 군사 지도자로 선언하는 것은 왕정 이념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B. M. Levinson, “The Reconceptualization of Kingship in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s Transformation of Torah”, 517.

27) **찌비**를 ‘가젤’로 번역한 역본으로는 NIV가 있다.

### 3.3. 실패의 장소

다윗의 조가의 반복 구절인 19절과 25절에 나타나는 **바못**은 **찌비**와 마찬가지로 다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바못**은 **바마**의 여성 복수 형태의 명사로 **바마**는 지형의 고도를 나타내는 ‘산’이나 비유적 의미로 ‘높은 곳’(신 32:13; 암 4:13; 사 58:14 등) 그리고 종교적 제의의 장소인 ‘산당’(삼상 9:12; 왕상 11:7 등) 혹은 신체의 일부인 ‘등’으로 그 의미가 제안된다(참고, 신 33:29).<sup>28)</sup> 다윗의 조가에서 **바못**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장소와 관련해 언급되지만 **바못**이 사울 왕정 출현의 주요한 종교적 배경을 제공한 지역 성소(삼상 9-10)였음을 상기할 때 그 다의적 특성은 주목된다.

사울의 공적 출현을 알리는 사울 전승에서 **바마**는 그에게 지역 성소(삼상 9:11-14)이자 그를 공적으로 등장시켜준 장소(삼상 9:22-24)로 전해진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 **바마**로 초대를 받았으며 그 곳에서 그는 특별한 환대를 받았다.<sup>29)</sup> **바마**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sup>30)</sup>로 기름 부음 받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공간적 배경을 제공하였다(삼상 9:15-16; 10:1).<sup>31)</sup> **바마**

28) 김정봉, “신명기 33:29절의 ‘바못’의 번역에 관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32 (2013), 30-49.

29) 사울은 **바마**에서 마치 제사장과 같은 환대를 받았다(참고, 출 29:22; 레 7:32-33). Peter Gruyter, *Festive Meals in Ancient Israel: Deuteronomy's Identity Politics in Their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BZAW 424 (Berlin: De Gruyter, 2011), 75.

30) 사울에게 적용된 히브리어 단어 נָגִיד(나기드)는 『개역개정』에서 ‘지도자’로 번역되지만 그 역할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삼상 10:1; 참고, 삼상 9:16). 사울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출현한 시기는 이스라엘에 왕정이 도입된 시기에 해당하지만 **나기드**가 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왕세자를 의미하는지 혹은 군대 사령관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이지 않다. **나기드**로 사울의 역할을 보여주는 본문인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군대를 징병하는 군사 사령관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넓은 문맥은 군대를 징병하고 통솔하는 지도력은 왕에게 속한 것으로 묘사한다(삼상 13; 15). 따라서 사울의 경우를 보기로 들 때 **나기드**가 군사 사령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군사 지도력을 가진 왕을 의미하는지 또는 왕으로 즉위할 자를 공적으로 미리 공표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한편 **나기드**의 명칭은 후대에 이사야 55:4에서 미래의 다윗에게 적용되어 이상적인 왕을 포용하는 단어로 제시된다.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 **나기드**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음을 참고하라. T. Ishida, *The royal Dynasties in Ancient Israel: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oyal-Dynastic Ideology* (New York: W de Gruyter, 1977), 57. ‘왕세자’를 위한 **나기드**의 논증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D. V. Edelman, *King Saul in the Historiography of Juda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30-31. ‘군사 사령관’으로서의 **나기드**의 논증을 위해서는 다음 논문을 보라. 소형근, “노라(Nora) 비문과 구약성서에 나타난 ‘나기드’(נָגִיד)의 연구”, 『구약논단』 14:3 (2008), 145-162. 왕정 이념의 배경 속에서 군사 지도자를 위한 **나기드**의 논증을 위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J. B. Kim, “King Saul’s mustering of all Israel (1 Sm 11:6-7): An idealised leadership”, *Verbum et Ecclesia* 32 (2011), Art. #557, 7.

31) 쿨리(Jeffrey Cooley)는 사무엘상 9-10장의 예언적 행위는 군주로서 사울의 주권과 새로운 정치 제도로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며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예언적 배경은 고대 이라크의 예언적 양상과도 밀접하게 복합된다고 주장하였다. Jeffrey L.

는 사울 왕정 출현을 가능케 한 신적으로 준비된 핵심적인 장소였다.<sup>32)</sup> 사울 전승(삼상 9-10)은 이처럼 사울의 왕권 출현에 있어서 산당으로 **바마**의 역할을 분명히 전한다. 또한 사울 전승에서 ‘산당’은 번제와 화목제가 규칙적으로 드려진 장소이며 여호와와 이름이 기념되었던 곳(삼상 9:12-13; 참고, 출 20:24)이었다. 사울 왕정 출현에 주요한 배경을 제공하였던 산당으로서의 **바마**는 다윗의 조가에 깃들인 다윗의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주목된다. 그러나 다윗의 조가 내에서 **바못**은 어떠한 제의적 배경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3)</sup> 이는 사울 왕정이 출현한 후에는 사울이 더 이상 **바못**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다윗의 노래의 **바못**이 산당으로 이해되어야 할 이유는 부족해 보인다. 결국 다윗의 조가에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신적 보장을 위한 이념적 주장의 견지에서 사울의 산당은 불법적인 종교적 행위나 배교 행위 등을 대변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윗의 조가의 **바마**는 사울 왕정 출현 시의 종교적 배경을 제공하는 ‘산당’의 의미로 간주되기는 어렵다.<sup>34)</sup>

다윗의 조가에서 **바못**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장소로 길보아 산(21절)에 상응되며 구체적으로 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הר**(하르)와 병행을 이룬다.<sup>35)</sup> **하르**는 고유 대명사인 길보아와 연계되어 산을 의미하지만

Cooley, “The Story of Saul’s Election(1 Samuel 9-10) in the Light of Mantic Practice in Ancient Iraq”, *JBL* 130 (2011), 247-261.

32) 참고, Robin Routledge, *Old Testament Theology: A Thematic Approach*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8), 230.

33) 지역 성소인 산당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이후에 불법적인 제의 장소로 심판(참고, 왕상 12:25-33; 14:22-24)되었다. 주전 8세기의 앗수르로 인한 유다의 국가적 위기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폐망으로 이끈 야곱의 죄의 원인으로 사마리아를 구체화하고 또한 병행적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을 유다의 산당으로 구체화하였다(미 1:5). 미가 1:5에서 산당에 대한 미가의 언급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과의 관계 속에서 제시되었음이 분명하다. 여호와를 향한 유다의 반역은 산당으로서의 예루살렘이 그 원인으로 정의된 것이다. 그러한 미가의 산당 이해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렘 26:18-19). 이러한 관측은 유다의 국가적 위기와 혼동 가운데 산당의 범죄는 사울 왕권이나 사마리아에게 돌려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자체의 것으로 동일시하였음을 보인다. 사실 다윗의 조가에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신적 보장을 위한 이념적 주장의 견지에서 사울의 산당은 불법적인 종교적 행위나 배교 행위 등을 대변하지 못한다.

34) A. A. Anderson, *2 Samuel*, WBC (Dallas: Word Books, 1989), 13을 참고하라.

35) 히브리어에서 병행 관계는 한 절 혹은 구 이상 떨어져 나타나기도 한다. 트래퍼 룬맨, 레이몬드 딜러드, 『최신구약개론』 2판, 박철현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30-31을 참고하라. 한편 구약성서에는 산과 같이 높은 지형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로 **הַרְבֵּי**(기브아)가 있다. 다음 이사야 2:2가 서술하는 것처럼 **하르**는 산을 가리키는 일반적 명사인 반면에 **기브아**는 작은 산 혹은 언덕 등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 “말일에 여호와와 전의 산[**הר**]이 모든 산[**הררי**]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הרבות**]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리로 모여들 것이라”(『개역개정』).

**바못**은 히브리어 2인칭 남성 소유 대명사와 연계되어 그 의미가 분명치 않다. **바못**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본문의 시적 표현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길보아 산은 사울과 요나단의 주검이 방치되었던 곳으로 그들의 전쟁 도구가 망한 곳이다(21, 27절). **바못**은 **하르**와 유비적 관계에서 그 곳과 동일한 곳으로 제시된 은유적 표현으로 보인다. 사울과 요나단은 높은 곳에서 민첩하고 자유롭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실패한 ‘가젤’이다. 만약 **바못**이 ‘높은 곳’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군사적 실패를 부각하는 용어가 된다.<sup>36)</sup>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파멸적이었음을 부각하는 다윗의 반복된 탄식은 **바못**은 사울과 요나단이 맞이한 죽음의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함을 알린다(참고, 삼상 31:1-6).<sup>37)</sup> 사무엘하 22:34에서 다윗은 그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여 그를 ‘높은 곳’(**바못**)에 세우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한다. 다윗의 조가와는 달리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부른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된다. 두 노래는 **바못**을 ‘가젤’과 ‘암사슴’과 연관하여 제시한다. 사무엘하 22:34에서 **바못**은 ‘암사슴’과 같은 다윗의 승리를 드높이는 ‘높은 곳’으로 반면에 사무엘하 1:19와 25의 **바못**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 실패의 장소와 연관된 곳으로 제시한다. 즉 **바못**은 실패한 ‘가젤’인 사울의 죽음의 장소로 강조된다. 다윗의 승리와 사울의 실패는 **바못**을 통해 뚜렷이 대비된다. 따라서 다윗의 조가에서 **바못**은 사울과 요나단의 군사 지도자로서의 실패를 구체화한 ‘높은 곳’으로 여겨진다.

### 3.4. 저주받은 길보아 산

**향찌비**와 **바못**의 의미 결정은 또한 21절에 묘사된 길보아 산에 대한 다윗의 저주를 부각시킨다. 다윗은 21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탄식하며 그들의 주검이 방치된 장소였던 길보아 산을 향해 저주를 내린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곳에는 이슬과 비가 멈추며 땅의 소산물이 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길보아 산들을 향한 다윗의 저주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목적과 비추어볼 때 자연스럽지 않다. 길보아 산들을 향

36) 맥카터(P. K. McCarter)는 **바마**를 ‘등을 꼳꼳이 세우다’는 속어를 구성하는 ‘등’으로 해석하였다. P. K. McCarter,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B (New York: Doubleday, 1984), 75.

37) W. Boyd Barrick, “Saul’s Demise, David’s Lament, and Custer’s Last Stand”, *JSOT* 73 (1997), 33-34.

한 다윗의 저주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극히 애통하는 것인지 혹은 길보아 산이 피폐해진 것의 원인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돌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다윗은 길보아 산들에 초자연적인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함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신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인지 모호하다.

신명기 1:16-17은 땅의 소산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의지이지 이슬이나 비가 그 원인이 아니라고 밝힌다. 신명기적 신학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비가 멈추는 것은 종교적 배교의 까닭으로 여호와와 심판의 표시이다(참고, 왕상 17-18). 시편 72:16은 의로운 왕의 행위는 산꼭대기의 땅 초차도 곡물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선언한다.<sup>38)</sup> 길보아 산들을 향한 다윗의 저주는 신명기적 신학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도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넓은 문맥은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는 전투에서 이미 그의 왕권을 상실했음을 언급한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에 후회하심으로 그의 왕권에 대한 신적 보증을 철회하셨다(삼상 15:35-16:1). 여호와는 ‘여호와와 영’을 사울에게서 거둬들이셨다(삼상 16:14; 참고, 삼상 11:6). 종교적으로 사울의 왕권은 이미 철회되었다. 길보아 산은 시적 의미에서 사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의인화된 길보아 산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

길보아 산을 향한 다윗의 저주와 문학적으로 유비되는 고대 근동의 본문은 우가릿 아캣 이야기이다.<sup>39)</sup>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개역개정』 삼하 1:21)

이슬도 비도, 두 바다의 놀침도, 바알의 음성의 유익함도 없으리라 (Aqht C (i) 43-46)<sup>40)</sup>

38) 참고, Robin Routledge, *Old Testament Theology: A Thematic Approach*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8), 237; Hans-Joachim Kraus, *Psalms 60-150,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1993), 76.

39) H. L. Ginsberg, “A Ugaritic Parallel to 2 Sam 1:21”, *JBL* 57 (1938), 209-13.

40) ANET는 “깊음이 솟구쳐 올라움이 없음”은 “제물 낼 밭도 없음”으로 읽을 수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James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53. 두 구절의 비교가 나타내는 표현과 주제의 유사성은 다음의 아캣 이야기의 배경을 좀 더 주목하도록 이끈다. ‘성읍 입구에서 과부나 고아들과 관계된 법적 사안들을 처리하는 자였던 다넬은 아들이 없었다. 바알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했으며 아캣이 태어났다. 후에 가나안 대장일의 신인 코타르-와-하시스(Kothar-wa-Hasis)가 한 연회에서 다넬을 방문해 그에게 활과 화살을 선물하였다. 다넬은

두 구절은 모두 이슬과 비라고 하는 자연 현상에 대한 신적 반응에 그 초점이 주어져 있다. 두 본문 다 이슬과 비의 통제는 신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명시한다. 그렇기에 땅의 소산물은 신적 의지의 영역 아래에 있다. 한편 두 구절은 서로 대조적인 배경을 제시하는데 아캇 이야기에서의 작물의 파괴는 아캇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땅의 소산물의 파괴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의 표현으로 다윗의 조가에서 의도된 것처럼 보인다. 물론 두 노래는 영웅과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근거한 저주를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이라는 각각 다른 문학적 배경은 다윗의 저주에 대한 종교적 배경 속에서의 역사적 근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한다. 특히 길보아 산에 대한 다윗의 저주는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귀결된 것에 주목하게 한다.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음(삼상 10:1)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으며 다윗도 기름부음을 받음(삼상 16:13)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여호와와 신적 승인의 표시였다.

길보아 산에 대한 다윗의 저주와 함께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못했다는 다윗의 주장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곡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사실 넓은 문맥 속에서 다윗은 지속적으로 사울의 기름 부음 받았음을 언급했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여호와와의 신적 보증을 받은 자라고 고백(삼상 24:6; 26:11; 삼하 1:14) 하였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다윗의 조가를 접하게 될 때 사뭇 대조적임을 알게 된다. 다윗의 조가에서 다윗은 사울을 전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언급하는 대신 그의 방패는 기름 부음 받지 못했다는 다윗의 언급은 실패한 사울과 그를 실패에서 구원하지 못한 방패는 신적 보장의 철회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길보아 산을 향한 다윗의 저주가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것으로 귀결된 것은, 그의 저주를 통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길보아 산에서의 죽음이 마치 사울의 방패가 기름

---

그 활과 화살을 그의 아들 아캇에게 주었는데 전쟁과 사냥의 신인 아낫이 아캇의 활과 화살을 탐내어 금과 은을 제공했지만 아캇은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후에 아낫은 엘(EI)의 허락과 함께 야판(Yatpan)을 시켜 아캇을 죽였다. 아캇의 죽음의 결과는 재난이었다. 작물들은 즉시 파괴되었으며 독수리는 다넬의 집 위를 날아다녔다. 다넬과 그의 딸 부갓(Bugat)은 애곡하기 시작했다.’ Michael D. Coogan and Mark S. Smith, *Stories from ancient Canaan*, 2nd rev.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2), 27-33.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된 것처럼 길보아 산이 이슬과 비가 필요 없는 오염된 장소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듯하다. 이사야 5:6-7은 이와 유사한 배경을 제시한다. 이사야 구절은 여호와와 공평과 정의를 열매 맺어야 하지만 포학을 맺은 자들로 이스라엘을 제시하고 그 이스라엘은 짓밟히고 황폐하게 된 포도원으로써 그 위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준다. 다윗의 저주는 사울은 여호와 앞에 정당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자란 사실을 부각시켜주는 것이다. 길보아 산의 다윗의 저주는 궁극적으로 실패한 사울과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그의 방패로 귀결되면서 성공적인 전사와 전쟁 무기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결국 다윗의 저주는 사울과 요나단은 전장에서 실패한 자들이며 그들의 병기는 결정적인 전투에서 무용지물이었음을 분명히 하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21절).<sup>41)</sup>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는 다윗이다. 다윗은 여호와와 큰 구원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그의 영원한 인자를 받을 자이다(삼하 22:51). 다윗의 길보아 산의 저주는 이스라엘 왕정의 종교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의 중요성을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두 축을 통해 선언하는 다윗 왕정 이념을 위한 전주에 해당한다.<sup>42)</sup>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의 극적인 표현으로 제시된 길보아 산의 다윗의 저주는 오히려 다윗 왕정의 군사적 우월함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호와 신앙의 종교적 보증을 주장하는 것이다.

#### 4. 결론

다윗의 조가의 서론(17, 18절)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한 노래를 기록하여 유다 족속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조가 자체에는 유다 족속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용사이다. 본문 자체는 다윗이 왜 그의 노래가 유다 족속을 대상으로 기록되고 가르쳐져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았다. 19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두 용사의 죽음을 상기시키며 24절에서는 “이

41) Johanna W. H. van Wijk-Bos, *Reading Samuel: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2011), 162.

42) 세르기(Omer Sergi)는 다윗 가문과 성전에 대한 중요성은 신명기적 역사서뿐만 아니라 구약성서 전반에 걸쳐 나타남을 논증함으로 이스라엘 왕정에 있어서 두 영역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Omer Sergi, “The Composition of Nathan’s Oracle to David (2 Samuel 7:1-17) as a Reflection of Royal Judahite Ideology”, *JBL* 129:2 (2010), 262.



스라엘 딸들”을 불러 사울을 위한 애곡에 참여토록 부른다. 서론에서 제시된 유다를 향한 다윗의 의지와 본문에서 표현된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태도 사이에는 긴장감이 존재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고 있다는 본문의 내용은 유다를 대상으로 한 다윗의 명령과 대비된 것이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자신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였음을 알리고자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그들을 자신의 애도에 대한 증인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다(참고, 삼하 4:9-12).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그 왕의 죽음을 애통해한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애곡을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근접 문맥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지은 이후에 이스라엘과는 구분된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을 전한다(삼하 2:4). 유다 지파에게 자신의 조가를 전하고자 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주권을 그들 위에 확립하고 왕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참고, 출 17:14).

본 연구는 다윗의 조가에서 애도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찌비**와 **바못** 그리고 길보아 산을 향한 다윗의 저주 등의 주제를 통해 다윗 왕정 이념의 배경 속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 다윗은 길보아 산에서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가젤’로서는 ‘수치’이며 또한 **바못**(높은 곳)에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강조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사울과 요나단의 실패를 알리는 기회로 삼았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다윗은 사울의 군사적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의 방패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였지만 사울이 왕이었음을 상기할 필요는 없었기에 그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 개인적인 애통함을 토로하였지만 그를 사울의 아들이자 적법한 왕위 계승자로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제 **바못**(높은 곳)에서 쓰러진 자들이다. 다윗의 애도에 깃들인 다윗의 정치적 의도는 넓은 문맥과도 자연스럽게 부합되었음을 보이는데 다윗의 노래는 단순한 조가의 성격을 넘어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제시한다. 다윗의 애도는 다윗의 왕정 이념을 구성하고자 죽은 자를 기리는 조가의 양식을 빌려 다윗의 왕정 출현의 신적 정당성을 주장한 왕정 이념의 노래로 보인다.

#### <주제어>(Keywords)

다윗의 조가, 다윗의 왕정 이념, 가젤, 높은 곳, 전쟁 도구.

David's lament, David's royal ideology, Gazelle, High places, Weapons of war.

(투고 일자: 2014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4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8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정봉, “신명기 33:29절의 ‘바뭇’의 번역에 관한 제안”, 『성경원문연구』 32 (2013), 30-49.
- 리히터, 샌드라,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 소형근, “노라(Nora) 비문과 구약성서에 나타난 ‘나기드’(נָגִיד)의 연구”, 『구약논단』 14:3 (2008), 145-162.
- 코흐, 클라우스, 『예언자들: 앗수르 시대』, 강성열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 해밀턴, 빅터, 『역사서개론』, 강성열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 Amzallag, Nissim, and Mikhal Avriel, “Complex Antiphony in David’s Lament and Its Literary Significance”, *VT* 60 (2010), 1-14.
- Anderson, A. A., *2 Samuel*, WBC, Dallas: Word Books, 1989.
- Barrick, W. B., *BMH as Body Language: A Lexical and Iconographical Study of the Word BMH When Not a Reference to Cultic Phenomena in Biblical and Post-Biblical Hebrew*, London: T & T Clark, 2008.
- Barrick, W. B., “Saul’s Demise, David’s Lament, and Custer’s Last Stand”, *JSOT* 73 (1997), 25-41.
- Bartholomew, Craig G., and Ryan P. O’Dowd, *Old Testament Wisdom Literature: A Theological Introduc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10.
- Borgman, Paul, *David, Saul, and God: Rediscovering an Ancient 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Brueggemann, W. B.,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0.
- Campbell, A. F., *2 Samuel: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volume VIII*, Grand Rapids: Eerdmans, 2005.
- Cooley, Jeffrey L. “The Story of Saul’s Election (1 Samuel 9-10) in the Light of Mantic Practice in Ancient Iraq”, *JBL* 130 (2011), 247-261.
- Day, J., “The Canaanite Inheritance of the Israelite Monarchy”, J. Day, ed., *King and Messiah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JSOTSup 27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72-90.
- Dick, Michael B., “The ‘History of David’s Rise to Power’ and the Neo-Babylonian Succession Apologies”, Bernard F. Batto and Kathryn L. Roberts, eds., *David and Zion*, Winona Lake: Eisenbrauns, 2004, 3-19.
- Dietrich, M., Loretz, O., and Sanmarin, J., *Die Keilalphabetischen Texte aus Ugarit, I: Transkription*, AOAT 24:1, Kevela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6.

- Dietrich, M., Loretz, O., and Sanmarín, J., *The Cuneiform Alphabetic Texts from Ugarit, Ras Ibn Hani and Other Places*, KTU, 2nd ed., Münster: Ugarit-Verlag, 1995.
- Edelman, D. V., *King Saul in the Historiography of Juda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 Fenton, Terry, “Hebrew Poetic Structure as a Basis for Dating”, John Day, ed., *In Search of Pre-Exilic Israel*, JSOTSup 406, London: T & T Clark, 2004, 386-409.
- Firth, David G., “The Accession Narrative (1 Samuel 27-2 Samuel 1)”, *Tyndale Bulletin* 58:1 (2007), 61-81.
- Freedman, D. N., “Acrostics and Metrics in Hebrew Poetry”, *Poetry and Prophecy: Studies in Early Hebrew Poetry*, Winona Lake: Eisenbrauns, 1980, 51-76.
- Fried, Lisbeth S., “The High Places (Bāmôt) and the Reforms of Hezekiah and Josiah: An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JAOS* 122:3 (2002), 437-465.
- Galpaz-Feller, Pnina, “David and the Messenger-Different Ends, Similar Means in 2 Samuel 1”, *VT* 59 (2009), 199-210.
- Ginsberg, H. L., “A Ugaritic Parallel to 2 Sam 1:21”, *JBL* 57 (1938), 209-13.
- Hertzberg, H. W., *I & II Samuel*,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Ishida, T., *The royal Dynasties in Ancient Israel: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oyal-Dynastic Ideology*, New York: W de Gruyter, 1977.
- Kim, J. B., “King Saul’s mustering of all Israel (1 Sm 11:6-7): An idealised leadership”, *Verbum et Ecclesia* 32 (2011), Art. #557, 7.
- Kraus, Hans-Joachim, *Psalms 60-150*,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1993.
- Levinson, B. M., “The Reconceptualization of Kingship in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s Transformation of Torah”, *VT* 51 (2001), 511-534.
- Lewis, T. J., *Cults of the Dead in Ancient Israel and Ugarit*, HSM 39, Atlanta: Scholars Press, 1989.
- Linafelt, Tod., “Private Poetry and Public Eloquence in 2 Samuel 1:17-27: Hearing and Overhearing David’s Lament for Jonathan and Saul”, *The Journal of Religion* 88 (2008), 497-526.
-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I*, Leiden: Brill, 1994.
- Mayes, Andrew D. H., “Deuteronomistic Ideology and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JSOT* 82 (1999), 57-82.

- McCarter, P. Kyle, "The Apology of David", *JBL* 99 (1980), 489-504.
- McCarter, P. Kyle,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B, New York: Doubleday, 1984.
- O'Connor, M., *Hebrew Verse Structure*, Winona Lake: Eisenbrauns, 1980.
- Redditt, Paul, *Introduction to the Prophets*, Grand Rapids: Eerdmans, 2008.
- Routledge, Robin, *Old Testament Theology: A Thematic Approach*, Downers Grove: IVP, 2008.
- Seow, C. L., *A Grammar for Biblical Hebrew*, Nashville: Abingdon, 1987.
- Sergi, Omer, "The Composition of Nathan's Oracle to David (2 Samuel 7:1-17) as a Reflection of Royal Judahite Ideology", *JBL* 129:2 (2010), 261-279.
- Shea, William H., "Chiasmus and the Structure of David's Lament", *JBL* 105:1 (1986), 13-25.
- Short, J. R., *The Surprising Election and confrontation of King David*, HTS 6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 Van Wijk-Bos, and Johanna W. H., *Reading Samuel: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2011.
- Waltke, Bruce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Abstract>

**David's Lament (2 Sam 1:17-27):  
A Song for David's Royal Ideology**

Jeong Bong Kim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David's lament (2 Sam 1:17-27) is a song that shows David's personal sorrow and his public concern for the death of Saul and Jonathan in the political context of status change. Its poetic structure, keywords, themes, and poetic expressions present Saul and Jonathan as failed military leaders, and it is set in the context of the emergence of kingship in ancient Israel.

The poetic structure of David's lament has a thematic climax in the final phrase "the weapons of war perished". This stands with the phrase "How the mighty have fallen", which is repeated in verses 19, 25, and 27. The remarkable military skill of Saul and Jonathan mourned in the central structural section (vv. 22-23) is contrasted with the emphasis on their deaths and announcing their failure as the military leaders of Israel. Saul and Jonathan should have been the "gazelle" on "high places", demonstrating their swiftness and agility, but instead they are presented as fallen on the mountain of Gilboa. Saul, who should have given the blessings of Yahweh to Israel, turned out to bring them shame, being killed by uncircumcised people. The anointed one was not saved and the shield of Saul was unable to protect him. David did not hesitate to state that Saul and Jonathan were failed military leaders of Israel. As the anointed and divinely sanctioned leader, David claimed that he was the heroic military leader Judah and Israel needed, and could bring effective weapons of war.

The failure of Saul and Jonathan leads the people of Israel to pay attention to David and acknowledge him as the anointed and divinely sanctioned king and leader of Israel. David's lament is the song of his royal ideology, announcing that he is "a man after His own heart". Although there is no direct reference to David's royal authority and his kingship in the song, it is clear that this lament is a song for David and a song for Yahweh, who made him both king and military leader of Israel.